

김영오 발전계획서



‘시작’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가슴 뛰게 한 말이 있었던가

수월 · 융합 · 창의

秀 · 融 · 創 인재의 배출

秀 · 融 · 創 연구의 선도

서울공대의 대전환이 ‘시작’ 됩니다.

‘변화’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언젠가는 변화는 생기기 마련이니까.
중요한 건,
변화의 ‘시작’이다.
‘누가’ 시작하느냐
‘언제’ 시작하느냐
‘시작’이
변화의 진정한 가치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저는 330여 명의 서울공대 거의 모든 교수님들을 만나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000여 줄에 달하는 기록들은 때로는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던 학내 이슈들이었고, 때로는 몰아치고 있는 외부의 위협이었으며, 때로는 비합리에 침묵하고 있는 서울공대의 안일함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해 교수님들과 공감하면서 저는 여기에 제 역할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대 주니어 교수모임을 시작하여 젊은 교수들의 목소리를 모아 당시 학장님께 전달하였던 기억들, 본부 보직을 수행하면서 복잡한 학내 이슈들을 소통하였던 시간들, ‘과실연’ 상임대표로서 건전한 비판을 당당히 정부에 전달했던 경험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축적된 폭넓은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김영오는 감히 서울공대의 영킨 문제들을 푸는 시작점, 서울공대의 당당한 목소리를 높이는 시작점, 서울공대의 격을 올리는 시작점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차원이 다른 서울공대만의 인재상을 정립하고 대내외에 선포하여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과 민간 기부를 획기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경을 밖으로 확장하고, 서울공대만의 가치를 널리 알려 늘 선한 뉴스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성과가 학생에게 투자되고 교수에게 환원되어 공부하고 싶은 캠퍼스, 일하고 싶은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관 2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미션 “새로운 지식 창출, 창의적이고 혁신적 인재 양성, 인류 번영에 공헌”에 근거하여, 저 김영오는 수월(Excellence), 그리고 융합(Integration)과 창의(Creativity)를 지향하는 학문공동체, 서울공대 대전환의 ‘시작’을 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① **서울공대의 비전:** 수월·융합·창의(秀·融·創)의 학문공동체

② **서울공대의 인재상:** 수월·융합·창의(秀·融·創)의 글로벌 리더

③ **추진전략의 모토**

- 1 **실행** (취임과 동시에 모든 아젠다의 실행을 시작)
- 2 **협력** (Government Affiliates & Industry Alliance 구축)
- 3 **소통** (교수 누구나 발의 가능한 정기적 열린 토론회 개최)

④ **성과 목표:** 2배의 발전기금, 3배의 복지, 5배의 교류, 10배의 홍보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영오 발전계획서

아젠다 01 수·융·창(秀·融·創) 인재의 배출, 서울공대가 선도합니다.

1-1 서울공대 인재상 선포 및 ‘인재역량센터’ 신설

- ▣ **현실진단:** 기술 대전환의 시대, 미래 인재상에 대한 숙의는 전무했습니다.
- ▣ **추진계획:** 서울공대만의 인재상을 만들고 2025년 관악캠퍼스 50주년을 맞아 선포하겠습니다. 서울공대 내 ‘인재역량센터’가 창의적 인재의 선발, 수월성 교육, 융합형 인재의 배출을 전담하겠습니다.

1-2 공학교육혁신센터를 교과과정기획팀과 학습기술지원팀으로 확대 개편

- ▣ **현실진단:**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정부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수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 **추진계획:** 교육과정기획팀은 50여 개 공대 공통교과목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지속해서 평가하겠습니다. 학습기술지원팀은 ‘Adaptive Learning System’을 도입, Big Data 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3 강의시수 연 9학점 추진

- ▣ **현실진단:** 모든 후보가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 ▣ **추진계획:** 공대의 논문연구학점을 연 3학점 더 인정하여 서울공대 교수 1인당 연 강의 시수를 현재 12학점에서 9학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젠다 02 대한민국 R&D, 이제 서울공대가 주도합니다.

2-1 공학연구원 산하 연 5억원 예산의 ‘서공 Think Tank Center(TTC)’ 신설

- ▣ **현실진단:** 공학연구원은 소극적 관리 행정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추진계획:** ‘서공 TTC’는 특임교수를 채용하여 국가 공학기술을 진단·전망하는 ‘SNU Technology Outlook’을 발간하겠습니다. 선도 공학기술 클러스터를 10개 론칭하여 서울공대의 연구성과를 국가 아젠다로 개발하고 Block Deal 형태의 대형 연구사업으로 이어지게 기획하겠습니다.

2-2 Industry Alliance, 민간 R&D 플랫폼으로

- ▣ **현실진단:** 산학협력 전문기관 공학컨설팅센터는 어느 순간 ‘창업 지원’ 위주로 축소되었습니다.
- ▣ **추진계획:** 공학컨설팅센터에서 Big Data 분석 기반 Knowledge Mapping 플랫폼을 구축, 기업을 찾아가는 양방향 산학협력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원사를 유치하여 Industry Alliance의 키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은 서울공대 교수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특화시키고, 비합리적 규정은 과감히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2-3 서울공대 자체 연구비 및 기금석학교수 제도 대폭 확대

- ▣ **현실진단:** 국가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연구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 ▣ **추진계획:** 실패한 연구, 탈락한 연구, 미완의 연구,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7전 8기’ 연구지원사업에 매년 10억원을 배정하겠습니다. 모든 조교수에게 1인당 연 2,000만원(총 7~8억원)의 기본 연구비를 매년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석학교수 100명 프로젝트 론칭, 임기 내 33명 실현하겠습니다. 공대 연구소 운영부장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젠다 03 서울공대 기금 유치와 홍보, 차원이 달라집니다.

3-1 발전기금 365억원 달성

- ▣ **현실진단:** 서울공대만의 발전기금 브랜드 파워가 미약했습니다.
- ▣ **추진계획:** 7대 발전기금 EXCEL(Education for X-Caliber Engineering Leader) 프로젝트를 발굴하겠습니다. 학부학과 발전기금 유치 시 공대 학장단이 함께 동행하고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은 학장실에서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3-2 대외협력 체계 강화

- ▣ **현실진단:** 서울공대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은 없고 교수 개인 차원의 산발적 노력만 존재합니다.
- ▣ **추진계획:** Government Affiliates, Industry Alliance 등 서울공대 초청 관산학 Bi-monthly Alumni Forum을 개최하여 향후 발전기금과 산학 연구과제의 인프라로 만들겠습니다. 스타트업 성공 동문 초청행사를 시작하여 재학생과 젊은 동문들 간 서울공대 Spirit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영오 발전계획서

3-3 10배의 홍보

- ❶ 현실진단: 서울대학교 뉴스클리핑 중 서울공대는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공대 Facebook은 2021년 5월 28일에 멈춰 서았습니다.
- ❷ 추진계획: 홍보실을 확대 개편하여 기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홍보 전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Technical Writer를 고용하여 서울공대의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알리겠습니다.

아젠다 04 서울공대, 신명나는 일터가 됩니다.

4-1 베풀목이 되는 직장

- ❶ 현실진단: 어디에 물어볼지 모르겠다는 신임교수님, 본의 아니게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불안하다는 교수님, 그리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과 고충을 토로하는 주니어 교수님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 ❷ 추진계획: 신임교수 및 조교수 전용 상담 및 서울공대 전용 불편 접수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법무/노무/세무/ 안전 등 교수 개인 보호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출산/육아 지원도 성별과 직급에 상관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더하여 강의 시수 감면 등 맞춤형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 건강하고 편안한 일터

- ❶ 현실진단: 연이은 안타까운 소식들로 인해 서울공대 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사와 주차의 만성적 문제가 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공개적 논의는 없었습니다.
- ❷ 추진계획: 건강검진 시 서울공대 지원비를 교수당 50만원(현재의 약 2.5배)으로 증액하겠습니다. 두레미담 1층 식당에도 교수 전용 공간을 오픈하겠습니다. 공론화를 거쳐 신공학관과 본공학관 각각 거점 주차시설(각 250억 규모)을 반드시 착공하겠습니다.

4-3 대화와 교류가 넘치는 일터

- ❶ 현실진단: 공과대학의 규모가 커지면서 서로 모르는 교수님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소모임에서의 소소한 즐거움도 줄고 있습니다.
- ❷ 추진계획: 공대 내 (취미, 연령별) 소모임에 연 5,000만원(15개 각 약 300만원)을 공대 교수협의회로 지원하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 16시에 학부학과 또는 연구소 초청 교수 교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대 교수님 누구나 발의가 가능한 정기적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젠다 05 서울공대 국제 교류, MOU를 넘어 실행 중심으로

5-1 공대 차원의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단 신설

- ❶ 현실진단: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과 투자에 비해 서울공대 차원의 준비는 미비합니다.
- ❷ 추진계획: 공학연구원 내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문 연구위원을 고용하여 서울공대 교수님들의 Global Alliance Projects 관련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5-2 초우수 학부생 유치

- ❶ 현실진단: 초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아시아 유수 대학에 뺏기고 있습니다.
- ❷ 추진계획: 글로벌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개발도상국 초우수 학부 신입생을 50명까지 유치하고 Summer Senior Research Intern도 20명 이상 선발하도록 기획하겠습니다.

5-3 국제협력실 확대 개편

- ❶ 현실진단: 외국인 유학생은 증가하고 있는데, 국제협력실 인력은 10년 전과 거의 그대로입니다.
- ❷ 추진계획: 국제협력실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하여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학생 및 교수님의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과의 사회공헌형 적정기술 교류도 전담 직원을 두겠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공약만 담았습니다.

공대 교협에 ‘발전계획이행평가위원회’를 제안하여 매 학기 평가받겠습니다.

준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취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공대 대전환의 시작점 김 영 오 드림